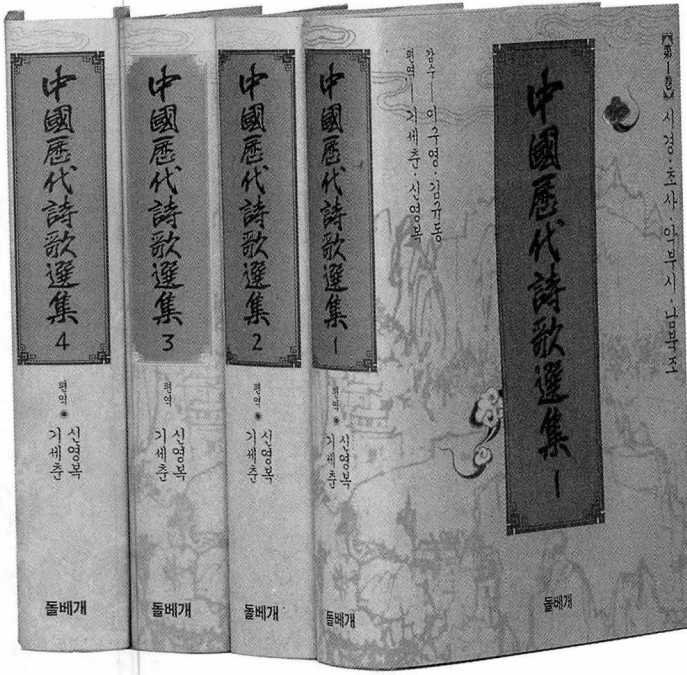


덩치 크지만 결함도 적지않다

기세춘 신영복 편역 「中國歷代詩歌選集」



유병래

성신여대 교수·중문학

성취한 것인가? 안타깝게도 선뜻 긍정하기엔 곤란한 점이 적지 않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역자들은 머리말에서 “비전공자들인 역자들” “중국문학의 전공자도 아니며 더구나 시적 교양이나 훈련이 전무한 역자들”이라 스스로 밝힌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말들이 단순한 겸양이기를 바랬다. 왜냐하면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너무 심한 만용일뿐 아니라 독자들에게 대한 기만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어는 단음절이며 고립어의 특성을 지닌 문자이다. 글자의 배열 순서에 따라 그 의미가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도 있는 이러한 언어적 특성은 언어의 형태를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반면 의사전달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물며 중국시의 경우, 특히 근체시는 평측, 압운, 글자수, 구절수의 제약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어순이 전도되거나 사와 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사 내지는 관계사들이 과감히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는 엄격한 형태의 변화와 격의 변화가 없다. 구와 구의 결합은 의미의 결합에 의거하지 형태의 결합에 의거하지 않는다. 중국시인들은 중국어의 이러한 특성을 십분 이용하여 詩歌·意象의 밀도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의적 효과를 증가시켜 시구를 함축적으로 만든다. 시언어의 함축성과 다의성은 독자들에게 상상의 여지를 충분히 주는 이점도 있지만 왕왕 애매성과 모호성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오기 쉽다.

번역 및 각주의 잘못 산견돼 아쉬움

중국유학 발전에 있어서 공자에 버금가는 공을 세운 서한의 동중서는 春秋繁露 精華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시에는 達詒가 없고 역에는 達占이 없으며 춘추에는 達辭가 없다.”

‘달’이란 ‘너무나 분명하여 의심할바 없고 세상이 다 인정하는’이라는 뜻이다. ‘고’는 ‘해석’이므로 詩無達詒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중국시는 함축성과 다의성·모호성이라는 그 자체의 속성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를 도가 튼 백정이 소잡듯 하나하나 발라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는 시경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가 확대되어 모든 시가를 포함한 지 이미 오래 되었다. 그러나 결코 이 용어가 미흡한 번역에 대한 방패막이로 쓰여서는 안된다.

번역의 사전적 의미는 “한 나라의 말로 표현된 글을 다른 나라의 말로 옮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다른 나라’의 독자들은 이른바 ‘한 나라’의 말과 글을 모르고서도 번역을 통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독자들이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인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와 같은 번역 하자는 실로 적지 않다. 그러므로 필자는 그들의 겸양이 형식적인 겸양이 아니라 진실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편역자의 머리말에 “중래의 해석과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된 시들에 대해서는 사계전문가들로부터 상당한 비판과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말이 있다. ‘전혀 다른 의미의 번역’이란 기존의 해석을 뛰어넘거나 그와 대등한 수준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술적이지 못한 敗筆에 가까운 해석이 속출하는 실정을 ‘전혀 다른 의미의 번역’으로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역대의 선집자들이 오래 산문에 포함시키는 文賦의 대표적인 적벽부를 시가로 분류한 유례 없는 엉뚱함이며, 역자들이 크게 참고했다는 북경대 임경 교수 등의 「중국 역대 시가선」에 실린 주석을 옮길 때 어설프게 처리한 것, 중국역사에 대한 일부 오류 등은 역자들이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질정을 통하여 이 선집이 계속 다시 고쳐지기를”바라고 있으므로 그런대로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결코 深入淺出한 견해로 간주하기는 곤란한 지나친 의역과 산견되는 오역, 오주들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커다란 문제로 남는다.

이 책은 번역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각 분야 匠人들의 경력과 학식에 걸맞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출간 전에 미리 해소되었어야 했다. 많은 오식과 오기가 현저한 이 책을, 아직은 한산한 중국시문학분야에 대한 세인의 관심을 환기하고 집중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일부 견해에 동조하여, 형식적인 찬사를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결코 이 네 분의 장인을 위한 것이 못된다. 아울러 중국시문학과 관련된 사계의 인사들은 차제에 어찌껏 1973년에 나온 지영재 교수의 「중국시가선」의 뒤를 이어 그 이후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면서 더 폭 넓고 깊은 이해를 가능케 하는 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는 게 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을 ‘詩歌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지어진 연대와 작가의 진위에 대해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아득한 상고시대의 것만 해도 요임금 때 어느 노인이 지었다는 擊壤歌, 요임금이 지었다는 堯戒, 순임금이 지었다는 南風歌, 기자가 지었다는 麥秀歌, 백이 숙제가 지었다는 采薇歌 등 수십편이 있다. 이러한 상고시대의 시가를 제외하고도 은나라 말엽부터 주나라 중엽까지 지어진 시가가 3천수가 넘게 있었으며, 공자가 그 중에서 300여 수를 가려 뽑아 시경을 엮었다는 이야기가 사마천의 사기에 실려 전해오고 있다. 이렇듯 기원전 5세기경에 이미 수십 명이 넘는 작가가 지은 시를 한데 엮어 시집으로 내놓았으니 이러한 유례를 중국시문학 이외에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전례없이 방대한 규모 특히 인상적

漢魏六朝詩 全唐詩 全五代詩 全宋詩 全宋詞 全金詩 全金元詞 全元散曲 全清詞抄 등 이미 편찬된 시가집에 실린 것만 대강 훑어봐도 최소한 작가 1만명 이상, 작품 10만편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아직 편찬되지 않은 것 가운데 全清詩를 더하고 각 시대의 佚詩까지 합한다면 어림잡아도 작가 2만명에 작품 20만 편은 족히 넘어설 것이다. 아무리 중국이 인구가 많고 땅이 넓은 나라임을 감안한다 해도 그 汗牛充棟의 분량에 놀라움과 함께 ‘시가의 나라’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그들에게 부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 엄청난 양의 작품은 전문적인 문학적 소양을 지닌 사람들에게 의해 지어진 것이 주류겠지만 그러나 그들 이외에도 위로는 황제를 비롯한 왕공·귀족·후비로부터 아래로는 장사꾼·농민·병사·기녀·노예 등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제각

기 자신의 처지와 시대환경 속에서 韓愈의 말대로 ‘잘 울어대었던 사람들(鳴之善者)’이었다. 중국의 역대 시가는 적어도 300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 속을 살아온 온갖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이 무르익고 압축되고 아로새겨져 있는 일대 장관인 셈이다. 그러므로 후세 사람들이 이 엄청난 양의 시가를 대강이나마 이해하는데는 가려뽑아 모으는 이른바 ‘선집’이라는 형식을 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작업은 사실 웅만한 전문가들도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최근 우리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규영 김규동 두 분이 감수하고 기세춘 신영복 두 분이 편역한 「중국역대시가선집」이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생각컨대 이 적지 않은 분량의 시가를 가려뽑아 편찬하고 우리말로 옮긴 역사적 작업에는, 중심이 된 어느 한 분이 있었지만 상기 네 분의 노력과 정성이 고루 서려 있는 듯하다. 선진시대부터 시대순으로 배열하여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어진 시가를 대략 3천 페이지의 분량에 천여편의 시를 뽑아서 묶어 놓았는데 앞으로 현대시기도 한 권으로 묶을 예정이라고 하니 완간되면 여기에 대략 300편은 더 추가될 것이다. 이만하면 가히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그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앞서 중국의 역대 고전시가를 묶어 소개한 책으로서, 그 양과 질에 있어서 가장 호평을 받았던 책으로는 단연코 1973년 지영재 교수에 의해 이루어진 「중국시가선」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원문을 통해 중국시가를 이해할 수 없는 독자들이 중국시가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자 첩경이었다. 그렇다면 기세춘세 등이 추진한 이번의 작업은 앞시대의 것을 영양분으로 삼아 한걸음 더 내딛는 後來居上, 혹은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는 식의 신진대사를